



## 도시공원 민간특례, 옳은 선택일까?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곳. 문제는 이곳에 사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공원을 조성할때 사유재산권 행사는 제한되었는데, 정부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지 해당 토지주들은 이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는 1999년,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2000년 법이 개정되어 '지금으로부터 20년 후까지도 도시계획상 공원 부지에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그곳은 공원이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일몰)'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그 시한이 바로 2020년 7월,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전국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곳은 수두룩, 예산은 없고 시간은 급박한 상황,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2009년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의 교육지책인데요. 조성해야 할 대상공원부지가 5만㎡ 이상 되는 곳에 한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전체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대신, 30% 범위에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는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로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단구근린공원과 단계근린공원, 경기도 동두천 중앙문화공원, 충북 청주 영운근린공원 등은 특례사업을 위해 민간업체까지 선정했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업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금싸라기 땅으로 남은 도시공원에 민간특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 부산 등지에서는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100%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버리고, 3,155억을 추가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특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례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아트센터가 있는 오동봉 공원과 중부공원. 미분양 주택이 1,200여 채에 달해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몇 천여 채의 주택이 도심에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교통체증 유발과 기반시설 포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는 제주주민의 삶의 질을 최악으로 떨어뜨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고, 발행한도 제한에서도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의 온전한 보전, 제주도는 무엇이 두려운 거죠?

## 무너지는 오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오름 훼손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사진들은 우리 참여환경연대가 훼손되는 오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새벽오름과 용눈이오름은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한 시간당 500명 정도가 탐방하고 있어, 하루 3천명 정도가 탐방하고 있고, 대규모 수학여행단도 한꺼번에 오름을 탐방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차오름, 도너리오름, 송악산처럼 휴식년을 하거나,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처럼 탐방예약제를 통한 제한적 탐방만이 방법입니다.

## 활동 이모저모

### 9월

- 9월 2일 제2공항비상도민연석회의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거리서명(제주시청)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송악산, 도너리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 9월 5일 물질악 에피소드 공모전 시상식(지림)
- 9월 10일 훼손오름 모니터링(용눈이오름)  
제2공항반대 집중선전전(성산지역)
- 9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연석회의 정기이사회(선술2리)  
한라생태길라잡이: 관음사 모니터링
- 9월 18일 제2공항 공론화청원서명제출 기자회견
- 9월 20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아스타호텔)
- 9월 2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연석회의
- 9월 26일 훼손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9월 30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소음 예측부실 평가 규탄 기자회견(제주도의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연석회의

### 10월

- 10월 1일 JIBS 제주를 말한다 토론 카지노 대형화 악인가 독인가(홍영철 공동대표)  
제주MBC 물 절약 현장 인터뷰(산천자이파트)
- 10월 4일 제주시 시민원탁회의 회의(박유라 국장)
- 10월 5일 2019 선술곳 축제 환경워크숍 강의(제주생명수, 지하수의 위기(홍영철 공동대표)  
제주 그대로가 아름다워(제주시청)
- 10월 8일 국회 국토위 제주도 국감 대응 토론회(홍영철 공동대표)
- 10월 10일 제주물세계포럼 패널토론(홍영철 공동대표)
- 10월 11일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대정 용천수 모니터링)
- 10월 12일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조천 용천수 모니터링)
- 10월 14일 정기이사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력 촉구 기자회견
- 10월 16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중단! 문재인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 및 상경농성 결의대회
- 10월 21일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물차/문석이, 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 문석이 오름  
훼손 오름 모니터링(용눈이오름)
- 10월 23일 제2공항 결사저지 제주도민 총력 집중집회
- 10월 24일 제2공항 도청 앞 집단단식 농성투쟁 돌입  
훼손 오름 모니터링(새별오름)
- 10월 26일 탐라생태안내자: 안뜨령을 만나러 가는 길
- 10월 28일 탐라생태안내자: 해설의 기법(동백동산)

### 제2공항결사저지 범도민대회 (10.23)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무얼 하셨나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활동가들은 「제2공항 공론화특위 구성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기원하며, 피켓팅을 이어갔는데요. 의회운영위원장의 어이없는 심사보류 결정으로, 의장의 분회의 직권상장까지 가로막힌 채 하루하루 끝나버렸습니다.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주권시대를 열었던 도의회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 이사회, 현장속으로! (09.16)



매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던 정기 이사회. 이번엔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바로 동물티마파크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선술2리!! 선술2리에서 이젠 반대대책위 위원에게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투쟁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단체도 반대대책위 활동에 함께, 더욱 강하게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 물질악 에피소드 공모전 시상식(09.05)



올해 초 산천자이파트 50가구와 개인주택 50가구에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물질악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우리 단체. 절수기기 사용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이였을까요? 이를 함께 나누기 위해 『물질악 에피소드 공모전』을 개최했는데요. 공모 결과, 절수기기 설치 이후 물질악의 필요성에 대해 느낀 점을 가족과의 대화로 재밌게 풀어낸 고정희 님이 1등에 선정되었습니다!! 짝짝!! 글 내용이 궁금하다면, 포털에 '물 절약하는 우리집'을 검색해 주세요 +\_+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9.20)



9월 20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행사가 열렸는데요. 보수와 진보, 중도와 중남 등 각계각층이 모여 우리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도 각계각층의 한 축으로 참여해 제주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평화체제와 비핵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우리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가깝고 먼 통일과 평화의 길. 그 시작이 되는 공론의 장이 꾸준히 모색되고, 진행될길 기대해 봅니다.

### 훼손 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10.24)



역세의 계절 10월!! 역세를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새별오름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예쁘게 핀 역새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더 더 안쪽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느라 오름은 더욱 훼손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580명이 라는 숫자를 감당하며 곳곳이 제주의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는 새별오름!! 언제까지 멋진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하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 용천수 살림 프로젝트 with 임형목 감독 (10.12)

10월 용천수 모니터링은 '조수 용당'으로 한창 운영세를 타고 있는 임형목 감독님과 함께 했습니다. 임형목 감독님은 조수 용당에서 다뤄를 찍으면서 여러 바다



물 등 바다 생물을 잘 아시고 계셔서, 바다와 가까이 있는 용천수의 생태도 잘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용천수에 가면 기다란 이끼 같은 것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남조류로 인과 질소 성분(가축분뇨나 비료) 때문에 발생하는 다는 군요.

###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도너리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09.02)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은 한 달

에 두 번 4곳의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2월까지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도너리오름을 다녀왔는데요. 비가 오려가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살짝 갠 틈을 비집고 도너리오름에 올라 비가 많이 와서 파인 곳들과 쓸러간 식물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자원활동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 한라생태길라잡이: 안뜨령을 만나러 가는 길(10.26)



2019년 9월 다시 한번 안뜨령을 만나러 가는 길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이번에는 안뜨령물과 이물을 사용했던 곤충동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잃어버린 마을이 된 곤충동 마을을 보며 4,3의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이들과 묵념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주의 문화, 생태, 역사까지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역시 멋지십니다. ^^!!

##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 문석이오름, 동백동산, 안뜨령을 가는 길

4월부터 달려온 탐라생태안내자 양성교육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10월엔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와 한라생태길라잡이 활동에 동행하여, 어떤 활동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익혀 나갔는데요. 도토리 선생님의 해설의 실제 수업을 마지막으로 8개월 간 달려온 교육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당신이 있어 제주가 든든합니다!

